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번역자가 알면 도움되는
우리말 바로 쓰기 지식을 소개합니다

임춘봉

cbnlim@crossent.co.kr

(주)크로스엔트

번역은 제2의 창작...

- 1안: 원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번역하기
- 2안: 원서 내용 중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하기
- 3안: 원서 내용 중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빼거나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기
- 4안: 원서를 여러 권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만 선택해서 조합하기

질문: 당신이 번역한다면 어느 안을 선택하겠는가?

의역은 금물

- 꼭 필요한 부분은 역자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고 쓰는 것이 좋다.
(역자 주: 이렇게 밝히고 쓰면 독자들은 번역에 신뢰심을 보인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역자 의견인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유추:
 - 철학서에 보면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을 썼는데.....
 - 어디까지가 스승의 생각이고, 어디부터는 자신의 생각인지 알기 어렵다.
 - 즉, 누구 말인지 구별 되지 않아 후세 사람들이 연구하느라 애 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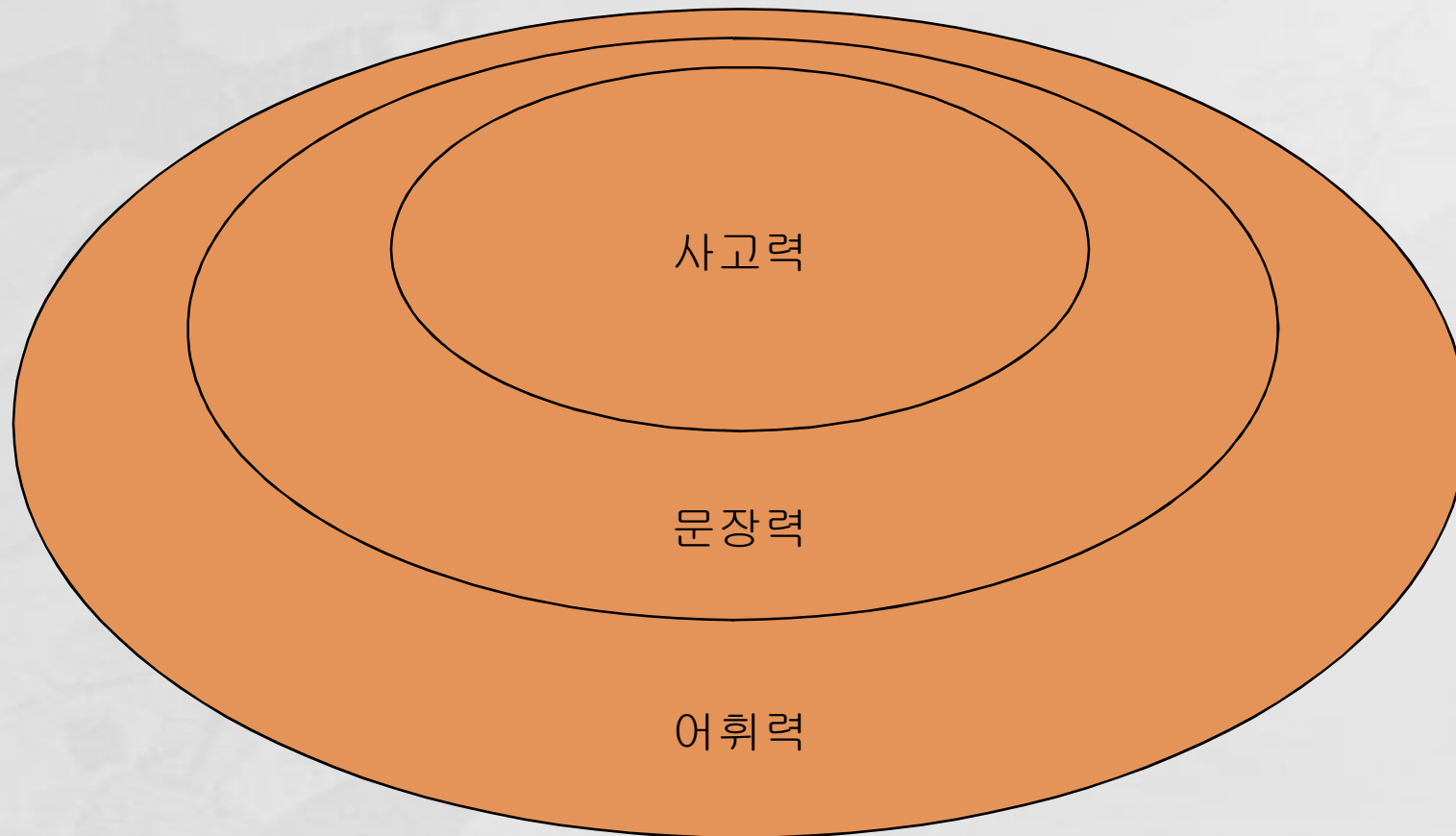
일물일가 적용은 필요조건

- 다음 단어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보자
 - ‘라면’ ‘돈’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 사람마다 느낌은 같을 거라고 속단하지 말자.
- 우리말 어휘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 같은 내용을 읽어도 독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각기 다르다
 - 비록 한국어로 쓴 한국문화 책이라도...
 - 파우스트를 소년, 청년, 장년 시대 세 번 읽었는데 그 때마다 느낌이 달랐다 - 유진오, 소설가

일물일가 사고는 기본이나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변한다.

Sapir-Whorf 가설

사고 한계는 언어 한계를 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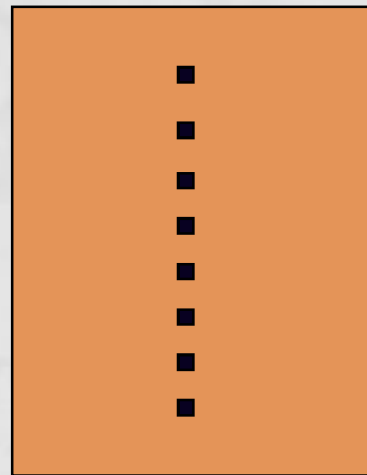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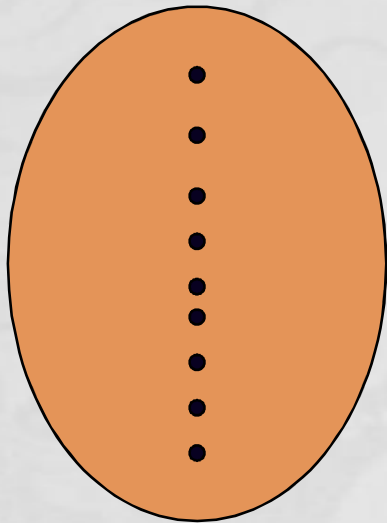


영어와 한국어 관계는...

다음 질문에 대해 대응 관계는 네 개 중 어느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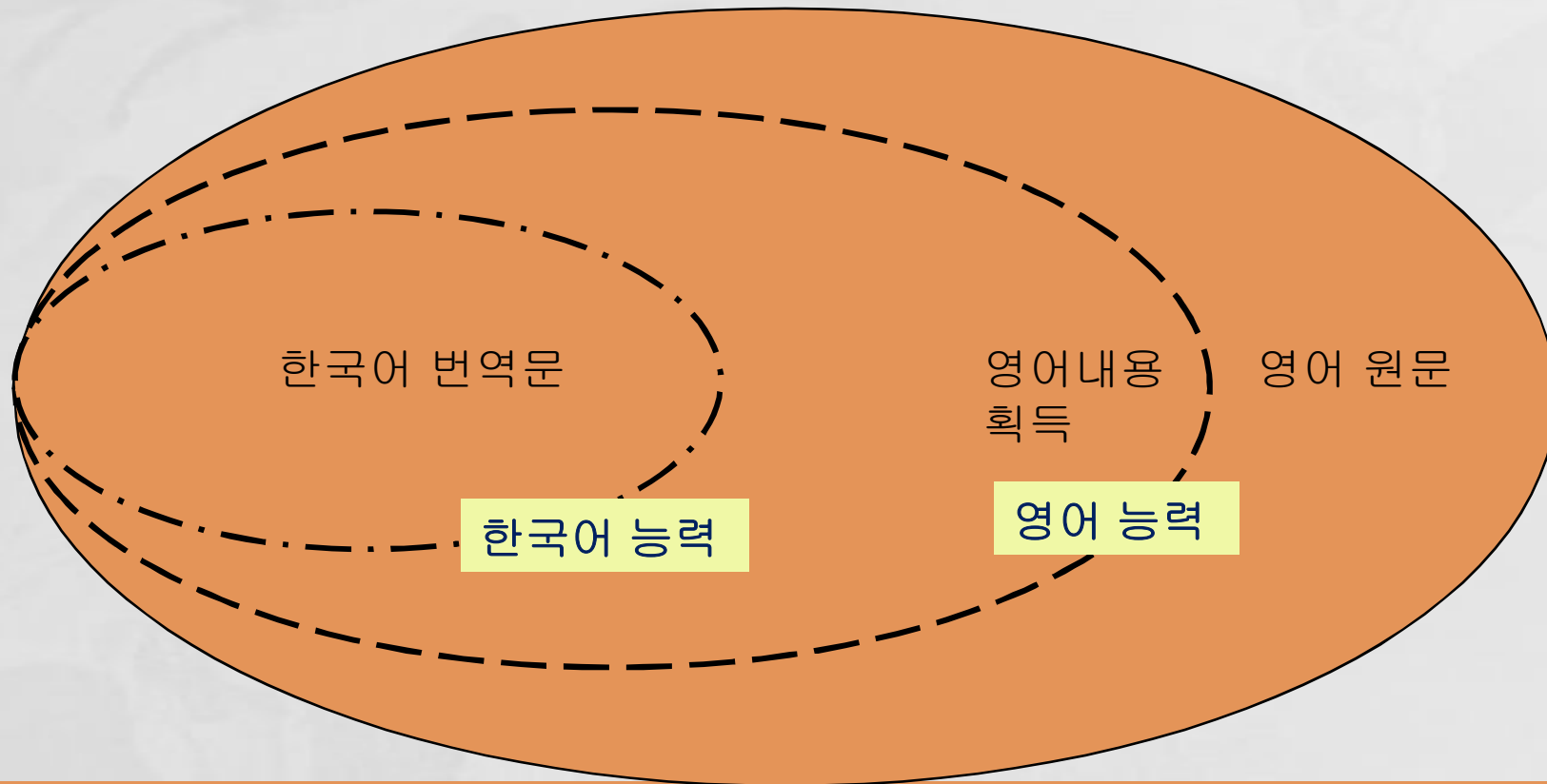
1:1, 1:n, n:1, n:m

- 두 언어 단어간 관계는?
- 두 언어 문장간 관계는?
- 두 언어 간 구문 관계는?
- 두 언어 간 의미 관계는?
-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를 관계로 설명한다면....



번역 과정은 두 필터를 거친다

- 원본 내용을 읽으면서...
- 영어 능력 만큼 내용을 획득할 수 있고
- 한국어 능력 만큼 한국어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도메인 지식이 품질을 좌우한다

- 도메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 전문 분야 종사자라도 도메인 지식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 지속적으로 도메인 관련 책을 읽으면서 탐구해야만 실력이 는다.
- 도메인 지식인을 식별하는 방법
 - 도메인 지식을 전달할 때 단언assertion 을 써서 설명하는가?
 - 단언 중에서 근거가 없다면 ‘거짓 신화’이다.

“동사” 하기 ~위해서

- 오후에 훈련하기 위해선...
 -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신세지게 만들고, 먼저 기억나게 만들고, 먼저 감사하게 만들면 된다.
- 위하지도 않으면서 **위한다고** 말하지 말라 – cblim

“명사”를 ~위해서

- 하지만 즐거운 대화를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적절하게 배합되어야만 합니다.
 - 따라서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 따라서 원활하게 대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생물을 주어로 하지 말라

● Ten minutes' walk brought me to the station.

➔ 위 문장을 번역해 봅시다 ???

잘못된 것은 보는 즉시 개선하라

- 글쓰기 책 홍보에서....

~의 사용 보기

- 왜 많이 사용하는가?
 - 일본어 영향
 - 영어 영향: of 명사,
- 두리뭉실, 모호한 문장
 - of 뜻이 15가지나 되는데 모두 ‘~의’ 로 표기한다면 진짜 의미는 가려진다.
- 의는 꼭 필요한가?
 - 사족인 ‘의’자는 빼고 읽을 때 더 선명해진다.

~의 사용 보기

- 왜 많이 사용하는가?
 - 일본어 영향,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の)를 사용하지만 우리 말은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니까 불필요함
 - of 명사
 - 영어 단어 나열 식
- 쓸데 없이 한 박자 씬으로 문장이 나른해진다
- 때로는 두 명사 간에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때도 있는데 ...

“의”자를 빼면 문제가 생기는가?

예술의 전당,
최고의 피아니스트,
김대진의 음악의 교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모든 자유를 행하라

예술 전당,
최고 피아니스트,
김대진 음악교실,
최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타인 자유를 해하지 않는 모든 자유를 행하라

“의”자를 빼면 문제가 생기는가?

지적인 재산권

→ 지적 재산권

저작권이 침해된 자료

→ 저작권 침해 자료

선거의 법에 어긋나는 자료

→ 선거법에 어긋나는 자료

→ 선거법에 어긋난 자료

김희선의 아름다운 자태~

→ 김희선 아름다운 자태~

티니 님의 답변에 대한 답의 글

→ 티니 님의 답변에 대한 답 글

→ 티니 님 답변에 대한 답 글

정보의 통신의 망을 통하여 음란의
물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

→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

“의”자를 빼면 문제가 생기는가?

박수철의 스키의 세상 > 박수철의 스키세상 → 박수철 스키세상

스키의 세상 의 이벤트 > 스키 세상의 이벤트 > 스키의 세상 이벤트 → 스키 세상 이벤트

예술 쫓의 위기와 예술의 위기 → 예술 쫓 위기와 예술 위기

민족의 문학의 작가 회의 사무총장 → 민족문학 작가회의 사무총장

지원금의 분배 문제로 비틀거리던 한국의 문화와 예술의 위원회 >
→ 지원금 분배 문제로 비틀거리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자를 빼면 문제가 생기는가?

생로병사의 비밀 → 생로병사 비밀

한국인 20%의 고통 → 한국인 20% 고통

마음의 독감 > 마음 독감 cf. 홍콩 독감, 일본 뇌염

하이 컨셉의 시대 > 하이 컨셉 시대

다니엘 핑크의 생각 > 다니엘 핑크 생각

학사의 관리는 > 학사 관리는

선수의 본인의 몫이다 > 선수의 본인 몫이다 > 선수 본인의 몫이다 > 선수 본인 몫이다

오전의 강의로만 >

속이 짝 찬 찌빵의 추억 >

“의”자를 빼면 문제가 생기는가?

- 눈으로, 귀로, 또 입으로 혹은 몸짓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세요.
- 대화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게 됩니다
-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동태 사용은 피하라

올바른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부쩍 눈에 밟히게 된 표현들이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생각됩니다 보여줍니다 추측됩니다

한국어에는 원래 수동태가 없다. 그러나 언어에서 '원래 없다'는 건 그냥 '옛날에 없었다'는 것이기에, 사실 한국어로 수동형을 구현한다는 게 굳이 나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는 법. 수동형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입니다' '추측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이러이러하게 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영문학자들도 영어문장을 수동태 보다는 능동태로 쓰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말 문장 품질 평가 기준은?

- 한 문장을 읽고 나서...
 - 안 보고 반복할 수 있는가?
- 속담은 가장 우리 말다운 말...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성경에 있는 어귀들에서 자연스런 우리말을 발견한다
 - 성경은 원래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썼고, 영어와 일본어에 물들기 전에 쓴 때문이리라...
 - 성경에는 짧게 말한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단언과 같은 효과가 있다.

“Do for others what you want them to do for you.”

“네가 대접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한글 우수성...

- 가장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임
- 두음법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소리를 억지로 막아야 하는가?
- 한글 글자수는 총 몇 개고, 컴퓨터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수는?
 - 일본 글자 수는, 그리고 발음 개수는?
 - 영어 글자수는, 그리고 발음 개수는?
- 중국어 글자수는 그리고 발음 수는?
- 한글은 새로운 발음 확장도 편하다 (자음이건 모음이건)
 - **B**와 **V** 발음 구별, **P**와 **F** 발음 구별, **TH** 발음글자 추가 가능 (예: 곧글)
 - **UN**은 한글을 세계 유산에 등록했음
 - **100년** 이내에 영어와 중국어만 남을 것이다 - 언어학자들 예언
 -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중국과 일본도 **100년** 이내에 한글을 이용할 것이다 - **cblim**예언

발음대로 쓸 때 맹점은? – 표준화가 안 된다

Collaboration Diagram 경우를 들어 보면 7종류가 쓰이고 있음

1. UML "콜레보레이션 다이어그램" 검색 375개
2. UML "콜레버레이션 다이어그램" 검색 166개
3. UML "컬레보레이션 다이어그램" 검색 165개
4. UML "코레보레이션 다이어그램" 검색 82개
5. UML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검색 10개
6. UML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 검색 5개

UML "협력도" 검색 151개

UML "협력" "레이션"에 대한 약 650개 결과

이 검색식은 ".....레이션"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왜냐하면 ...레이션은 그대로 쓰이는 법이 없이 꼭 "협력" 용어로 설명하고 지나간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협력" 을 용어로 하면 추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UML 2.0 추가 도구

다음 세 가지 도해는 이름이 유난히 길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1. **'Deployment diagram'** 을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쓸 것인가?
 2. **'Composite structure diagram'** 을 '컴포지트 스트럭춰 다이어그램' 쓸 것인가?
 3. **'Interaction overview diagram'** 을 '인터랙션 오우버뷰 다이어그램' 쓸 것인가?
 4. **'Communication diagram'** 을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쓸 것인가?
- 이들은 각각 배치도, 복합구조도, 교류개요도, 통신도 로 쓰면 의미가 덜 들어 올 것인가?

프로세스 이름과 문서 이름

- 용어 한글화와 연관되므로 함께 감안해서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방법론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 용어를 선택하려면 도해, 프로세스, 그리고 모델명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아래 UML2.0 에서 사용하는 세 분야 용어들을 나열했습니다.

13가지 도해Diagrams

도해는 요소들의 집합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며, 보통 꼭지점(사물)과 호(관계)를 연결한 그래프로 나타낸다. 도해는 시스템을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UML2.0 에는 13개 도해가 있다.

- 1. 클래스도 (Class diagram):** 구조 도해로서, 클래스, 인터페이스, 협력, 그리고 그들간 관계들을 나타낸다
- 2. 개체도 (Object diagram):** 구조 도해로서, 개체와 그들간 관계를 나타낸다
- 3. 컴포넌트도 (Component diagram):** 구조 도해로서, 컴포넌트의 외부 인터페이스, 포트, 그리고 내부 구성을 나타낸다.
- 4. 복합구조도 (Composite structure diagram):** 구조도해로서, 구조화된 클래스에서 외부 인터페이스와 내부 구성을 나타낸다. 이 책에서는 복합구조도와 컴포넌트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 5. 쓰임새도 (Use case diagram):** 행동 도해로서, 쓰임새, 행위자 그리고 그들 관계를 나타낸다
- 6. 순차도 (Sequence diagram):** 행동 도해로서, 메시지의 시간적 순서를 강조하여 교류를 나타낸다.

13가지 도해Diagrams

7. 통신도 (Communication diagram): 행동 도해로서 교류를 나타내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 개체의 구성을 강조한다
8. 상태도 (State diagram): 행동 도해로서, 특정 개체에서 사건 순서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여 상태머신을 나타낸다
9. 활동도 (Activity diagram): 행동 도해로서, 활동에서 활동으로의 흐름을 강조하여 연산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10. 배치도 (Deployment diagram): 구조 도해로서, 노드들, 가공물, 클래스, 컴포넌트간 관계를 나타낸다
11. 패키지도 (Package diagram): 구조 도해로서, 모델을 패키지로 구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12. 타이밍도 (Timing diagram): 행동 도해로서, 특정 시간에 메시지간 교류를 나타낸다. 그 도해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3. 교류개요도 (Interaction overview diagram): 행동 도해로서, 활동도와 순차도 특성을 조합한 도해이다. 그 도해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단계와 반복 (Phases and Iterations)

한 단계는 프로세스에 있는 두 주요 이정표간 기간이다. 이정표는 잘 정의된 개체 집합이 모여있으면서, 산출물이 완료된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B-1에서 RUP는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도입Inception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실시한다.
- 정련Elaboration 프로젝트 계획과 건강한 아키텍처를 설정한다.
- 구축Construction 시스템을 키운다.
- 전이Transition 사용자들에게 시스템을 공급한다.

규율discipline

RUP는 아홉 개 규율로 구성되어 있다.

1. **업무 모델링** 고객 조직에 관한 구조와 동적인 면을 설명한다.
2. **요구사항** 여러 접근법으로 요구사항을 이끌어 낸다.
3. **분석과 설계** 복수 아키텍처 관점으로 설명한다.
4. **구현** 소프트웨어 개발, 단위시험, 통합 등을 참작한다.
5. **시험** 시험사례, 절차, 결점추적 메트릭을 설명한다.
6. **배치** 어플리케이션 인도할 품목에 자재명세서, 배포 노트, 훈련 내용을 포함한다
7. **형상관리** 프로젝트 가공물과 관리 활동에서 무결성 변경 관리와 유지보수를 제어한다.
8. **프로젝트 관리** 반복 프로세스로 작업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설명한다.
9. **환경**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하부 구조를 다룬다.

가공물 Artifacts

- 각 RUP 활동마다 연관되는 가공물이 있고, 입력으로 사용되든가 출력으로 나온다. 어떤 가공물은 다음 활동에서 직접 입력으로 사용되고, 프로젝트에서 참조 자료로도 사용되는 것도 있고, 계약서에서 정의한 인도 물은 포맷을 갖추어 출력한다.
 - 모델가공물 8개
 - 기타 가공물 5개

모델 가공물

모델은 RUP에서 가장 중요한 가공물이다. 모델은 현실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제작중인 시스템을 더욱 잘 알려고 제작한다. RUP에는 여러 모델을 이용하여 모든 중요한 결정 사항들 즉 소프트웨어 중심 시스템을 가시화하고, 명세화하고, 구축하고, 문서화하기 등을 다룬다.

1. 업무 쓰임새 모델 (Business use case model) 조직을 추상적으로 설정한다
2. 업무 분석 모델 (Business analysis model) 시스템 문맥을 설정한다
3. 쓰임새 모델 (Use case model) 시스템 기능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4. 분석 모델 (선택) (Analysis model) 개념 설계를 설정한다
5. 설계 모델 (Design model) 문제와 솔루션 어휘를 설정한다
6. 데이터 모델(선택) (Data model)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리포지토리를 나타내는 데이터 표현을 설정한다
7. 배치 모델 (Deployment model) 시스템이 실행되는 하드웨어 토폴로지를 설정하고, 또한 시스템 동시성과 동기화 메커니즘도 설정한다
8. 구현 모델 (Implementation model) 물리 시스템을 조립하여 배포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설정한다

기타 가공물

- RUP 산출물은 관리 산출물과 기술 산출물로 분류되고, 그 중 기술 산출물은 다섯 개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
 1. 요구사항 집합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2. 분석, 설계 집합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3. 시험 집합 시스템을 인증하고, 검증하는 접근법을 설명한다
 4. 구현 집합 개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조립을 설명한다.
 5. 배치 집합 형상에 관련하여 인도할 자료를 제공한다

SW설계기술 수험교재 목차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우리 말에는 명사 두 개를 합성할 때 “의”자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명사를 연결해서 합성어를 만들 때 “の”자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일본어를 배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우리말에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말에는 대부분 불필요한 연결어입니다. 따라서 “의”자를 가능한 뺍시다.
-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말 ‘의’자를 빼도 의미가 똑 같고 더 간단해서 좋더군요. 더구나 한심한 것은 같은 말인데도 넣은 것과 뺀 것이 책 한 권에도 함께 나오는 일이지요.

Diagram은 ...

- “다이어그램”이란 용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도”로 써도 혼동이 없는데 굳이 영어 발음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발음대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 참고로 TTA 정보통신용어사전을 보면 총 27개 Diagram으로 끝나는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했는데 그 중 24개는 ~도를 사용하고, 2개는 ~다이어그램을, 1개는 ~도표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다음 표 참조

다른 분야에서는 ...

사전에 나온 모든 IT용어 한글

- 결선도
- 계통도,
- 기능관계도
- 나이키스트선도
- 논리도
- 단선결선도
- 대화형도표
- 데이터즉시접근도
- 데이터흐름도
- 레벨계통도
- 리케선도,
- 벡터선도 보드선도,
- 벤다이어그램,
- UML다이어그램
- (출처:
<http://www.mic.go.kr/technology/dictionary.jsp>)

IT용어 영문

- Wiring diagram,
- Block diagram
- Function diagram,
- Niquist diagram,
- Logic diagram,
- ...
- Dialogue diagram,
- Data access diagram
- Data flow diagram,
- Level diagram,
- ...
- ...
- Venn Diagram
- UML Diagram

다이어그램 용어는...?

- IT 이외 분야에서는 대부분 도 圖를 씁니다:
조직도, 가계도, 도면, 지도, 약도, 설계도,
평면도, 입면도, 측면도,
- Diagram은 “도”로 합시다: 클래스도, 객체
도, 활동도, 협력도, 상태도, 배치도, 패키지
도, 순차도, 쓰임새도 (또는 유스케이스도),
.....

용어 선정 시에는:

- (1) 용어를 정할 때는 100년을 내다 봅시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어 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10글자 30타수 치는 영어식 발음 용어를 우리 후세대까지 물려줄 것인가?
- (2) 처음 가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서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 뒤에 오는 수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그 길을 따라 올 테니까..... cblim

초안	수정안
1. 객체지향 기본 개념	1. 객체지향 기본 개념
- 객체 지향의 정의	객체지향 정의
- 객체 지향의 핵심개념	객체지향 핵심개념
- 연습문제	
- 객체, 클래스, 메시지 정의 메시지 정의
-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	...프로그램 동작원리
2. UML의 이해	2. UML 이해
- 모델링의 개념, 역사, 방법	모델링 개념,
- UML의 정의 및 배경, 필요성	UML 정의
- UML 다이어그램들의 소개	UML 도해 소개

자동 번역기...

- 번역기가 번역사보다 나은 분야
 -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간에는 번역기 우수
 - 한일 번역, 일한 번역도 우수
- 영한 번역기가 일부 활용되고 있음
 - Google번역기
 - 트레뉴
- 영한 번역기는...
 - 기대에 부풀어 구입했다가 실망만 안고 버림
 - 실망 이유: 번역 품질이 문제, 사용 방법 미숙
- ROI 틈새를 찾다
 - 용어 표준화에 최고 효과...cblim경험
 - 엉터리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더라 - cblim경험
유추: 신입 사원에게 일 시켜놓고 도와서 일 끝내기

번역 프로세스

- 도서 선정
- 역자 선정
- 번역 출판사 선정, 협의
- 번역 출판사에서 원서 판권사와 협의, 계약
- 역자와 번역 출판사 간 계약
- <<<텍스트 번역 >>>, 출판사에 전달
- 그림, 표 작성 ← 출판사 담당
- 교정 작업 ← 초안을 출판사에서 받은 후
- 머리말, 역자 소개, 추천서(선택)
- 목차 인덱스, , 표 목록, 그림 목록, 찾아보기
- 표지 교정 작업이 필수
 - 표지는 교정 볼 기회가 없으므로 팩스로 받아 교정요.

텍스트 번역

- 용어집 발행
 - Excel
 - 영어 명, 한글 명, 한글 후보 명
- 참여자에게 작업 분배
- 매주 점검
- 워드로 작성
- 검토자가 원본 수정 ← 원본은 메모에 저장
- 자신 있는 문장만 번역하기 (80-20)
- 그림을 번역할 것인가?

번역 조언

- 박장준님 생각

1. 불완전 명사 '것' 최소화
2. 존재사 '있다' 최소화
3. '할 수 있다'(can에 대한 일본어 번역에서 가져온 번역어) 최소화. "좋은 수가 있다", "어쩔 수 없다" 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할 수 있다' 는 말을 피함.
4. '의'(영어 of 에 대한 일어 번역 노(no) 를 번역한 한국어) 제거
5. 인과관계를 간과한 번역 회피
6. 문장 구성요소 구비 여부(주어만 있고 목적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둘, 등)

A사 규칙 1/6

- 김희정님 생각

이 장(this chapter)에서,, 와 같이 현재 장이 1장이건 2,3,4장이건 상관없이 '이 장' 이라고 표현하면 안됨.	1장, 2장,3장, 4장 등 (부, 절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영어와 조사는 붙여 써야 함.	Newyork에 가본 적이 있는가?	
간단한 원어는 그대로 쓴다.	ex) 저수준 -> 로우 레벨	
기호는 기호 그대로 표기	ex) 퍼센트 -> %	
이중 반복은 피한다.	ex) 매 시간마다 -> 시간마다 or 매 시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능동 표현을 쓸 것	나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 나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말만 봤을 때 어색한 용어는 꼭 영어를 뒤에 붙여 써 줄 것.	예 : 엘리먼트(element) . 다만 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맨 처음의 용어에만 우리말(영어)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에는 우리말만 씀.	

A사 규칙 2/6

~데의 사용법	(1) 서둘러 갔는데 그는가버리고 없었다.	붙여쓰
	(2) 하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 모니터링하는 데 쓰인다	띄어쓰 (불완전 명사)
복합어 표현시 하이픈생략	예. Data-link -> 데이터 링크	
~지의 사용법	(1)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설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쓰이는지에 따라	붙여쓰
	(2) 실행한 지 오래됐다면 만난 지 채 두 시간도 되지 않았다.	띄어쓰 (시간을 나타낼 때)
간결한 문체 사용	실행하여 -> 실행해 나타내었다 -> 나타냈다 살펴보았다 -> 살펴봤다 준비해두었다 -> 준비해뒀다 향상되었다 -> 향상됐다 검토하였다 -> 검토했다	
군더더기 말투 지양	알아보기로 하자 -> 알아보자 배워보도록 하겠다 -> 배워보겠다 하도록 했다 -> 하게 했다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 메소드를 사용한다	

A사 규칙 3/6

<p>번역투 지양</p>	<p>(1) 주어 명시 여러분, 우리는 -> 빼도 무방 (단, 필히 명시해야 할 때는 쓸 것)</p> <p>(2) if문 만약 ~ 한다면 -> '만약' 뺄것</p> <p>(3) though문 비록 ~하더라도 -> '비록' 불필요(매끄럽게 표현할것)</p> <p>(4) and, or 문 '그리고, 또'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곳에 조사 "도"를 이어 붙이면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p> <p>(5) 조사의 적절한 사용 명사형을 만들 때 조사를 적절히 생략하는 것이 좋다 리다이렉트를 수행하기 -> 리다이렉트 수행</p>	
<p>띄어쓰기, 구두부호</p>	<p>(1) 그리고, 그러나 등 매우 흔하게 쓰이는 접속사에는 쉼표를 붙이지 않는다 예 : 그리고, 다음과 같이(x) -> 그리고 다음과 같이...(O)</p> <p>(2) 문장 끝에는 콜론은 쓰지 않는다. -> 마침표로 마무리</p> <p>(3) 괄호로 된 문장을 부가 설명해 표현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형식과 구두점 표현을 통일한다 예 : 전역 주소로 변환돼야 한다(이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p>	

A사 규칙 4/6

영문 병기 규칙	<p>모든 번역문은 번역을 하거나 음차 표현 등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p> <p>영문을 명시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p> <p>예.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p> <p>※ 위와 같은 약어 형식이거나 이름 등의 고유명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괄호 안에는 대부분 소문자로 표시한다.</p>	<p>한영 병기는 한글(영어)의 형식을 따른다</p> <p>예. 파이프라인(pipeline)</p> <p>※ 공백 없음</p>
복수형 지양	<p>(1) 구체적인 복수형을 명시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 되도록 복수형은 쓰지 않는다.</p> <p>예. 구체적인 사례들, 경우들 (X)</p> <p>(2) 특히 많은, 여러, 대부분 등 앞에서 수를 명시하는 수식어가 붙을 때는 단수형으로 표기함 (혹은 생략하는 편이 더 좋음)</p> <p>예. 많은 사람이, 수많은 예제 중에서, 여러 방법을 쓴다 (○)</p>	
가능하면 문장을 간결하게!(주어와 술어만 명확하면 읽기 더 편하다)	<p>뛰어난 처리속도와 그래픽 성능은 개발자들이 강력한 인간/기계간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p> <p>=> 뛰어난 처리속도와 그래픽 성능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강력한 인간/기계간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p>	<p>이 문장에서 주어가 '개발자'가 되면 의미파악이 쉬워진다.</p>
그 부분	해당 부분	
요구한다	필요하다	
되어진다	된다	

A사 규칙 5/6

<p><번역투></p> <p>~하기 위해 ~에 관해 ~에 대해 가지다 A는 B이다.</p>		
<p><생략해야 하는 표현></p> <p>(수 개념-관사) 몇몇의 (Some) 약간의 일련의</p> <p>어떠한 단순히</p>		

A사 규칙 6/6

단지 ~만 오직 ~만	단지 생략 오직 생략	
각각의	각, 각기	
서로 다른(each other) 다른(other)	그 외, 그 밖의, 기타, ~ 등	
왜냐하면 ~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략	
대개의 경우	대개	
~을 통해	을 바탕으로 (문맥에 맞게 변경)	

이오덕 선생님 가르침 1

1. 주어와 술어를 일치시킨다

2. 영어 말을 피한다

- 이슈화 → 쟁점 되게 - 과거완료형 ‘있었다’ → 였다
- 지난날의 우리는 누구였었다 → 지난날의 우리는 누구였나
- 수동태는 서양식 표현이므로 우리말에서는 어색하므로 능동태로 쓴다. 그리고 영어 쓰기 전문서적에서도 능동태를 쓰도록 권고하는 추세다

3. 한자 말을 줄인다.

‘-적(的)’ : “본래 ‘...의’ 뜻으로 쓰는 중국어 토이다. 일본 ‘명치’ 초기에 번역문에서 영어 -tic의 음과 뜻에 맞추어 쓴 데서 비롯되었다.” 일본말을 보완하는 용도로 쓴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4. 일본 말 번역 체 글을 쓰지 않는다

- 에 의해 (일본식 중국글자말투로서) 10가지 이상 다르게 쓰임
- 불리다 → (말) 하다 ‘옛날부터 6월은 보릿고개라 불렀다.’ → 옛날부터 6월을 보릿고개라고 했다.

이오덕 가르침 2

잘못된 표현

1. 가급적/
2. 가끔씩/
3. 가능하다/
4. 가능한 한/
5. 가시화된/
6. 각종/
7. 각처/
8. 간극/
9. 간주하다/
10. 간혹/

바로잡은 표현

1. /될 수 있는 대로;
2. /가끔;
3. /할 수 있다;
4. /될 수 있는 대로;
5. /드러난;
6. /여러 가지;
7. / 여러 곳; 간(間)동안;
8. /틈;
9. /보다, 여기다;
10. /더러;

이오덕 가르침 3

잘못된 표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그 외/
3. 그 중/
4. 근간/
5. 근래에/
6. 근로하다/
7. 금년/
8. 금번/
9. 너무/;
10. 굉장히/

바로잡은 표현

1. /그런데도, 그러나, 그렇지만;
2. /그 밖;
3. /그 가운데;
4. /뿌리, 바탕, 밑바탕;
5. /오늘날;
6. /일하다;
7. /올해;
8. /이번;
9. /참, 매우, 무척, 아주;
10. /매우, 무척, 아주, 몹시;

이오덕 가르침 4

잘못된 표현

1. -이 아닐 수 없다/
2. 사용되어지고/
3. 운명 지어진/
4. 경우/
5. --맞/
6. -에 다름 아니다/
7. -임에 틀림없다/;
8. -에 있어서의/
9. 당연히/
10. 대가/

바로잡은 표현

1. /-이다;
2. /쓰고;
3. /운명을 타고난;
4. /때,일;
5. /과,와;
6. /다름 바 없다,-다;
7. /-임이 틀림없다,-이다;
8. /-에서,-의;
9. /마땅히;
10. /값;

이오덕 가르침 5

잘못된 표현

1. 대당/
2. 대대적으로/
3. 대립적/
4. 대면하다/
5. 대부분/
6. 대체적으로/
7. 더불어/
8. 던져지다/
9. 되어져/
10. 보수적/;

바로잡은 표현

1. /한 대에;
2. /크게;
3. /대립시켜, 맞세워;
4. /마주서다;
5. /거의 모두;
6. /대체로;
7. /함께;
8. /(세상에)버려지다;
9. /되어;
10. /보수;

이오덕 가르침 6

잘못된 표현

1. 보여지는/
2. 보완하다/
3. 보편적으로/
4. 보편화된/
5. 보행하다/
6. 본인의/;
7. 본질/
8. 본질적으로/
9. 부른다/
10. 부분/

바로잡은 표현

1. /보이는;
2. /채우다;
3. /두루, 널리;
4. /널리 퍼진;
5. /걸어가다, 걸어다니다;
6. /내가, 내;
7. /본바탕;
8. /본질에서, 본질로;
9. /-라고 한다;
10. /쪽;

이오덕 가르침 7

잘못된 표현

1. 부상하다/
2. 부심/
3. 부위/
4. 불리우다/
5. 불변의/
6. 수일/
7. 수정하다/
8. 수 차례/;
9. 순서/
10. 습관/

바로잡은 표현

1. /떠오르다;
2. /애써;
3. /자리;
4. /부르는, 말하는, (-란) 이름이 붙은;
5. /움직일 수 없는;
6. /며칠;
7. /손질하다, 고치다, 다듬다, 바꾸다;
8. /여러 차례;
9. /차례;
10. /버릇;

이오덕 가르침 8

잘못된 표현

1. 습관적으로/
2. 만개 시/
3. 시각/
4. 시간당/
5. 예문/
6. 예상 밖/
7. 입장/
8. 감상의 즐거움에서/
9. -부터의,-로부터의/
10. -에의/

바로잡은 표현

1. /버릇처럼;
2. /활짝 필 때;
3. /눈길, 눈;
4. /한 시간에;
5. /보기 글;
6. /뜻밖;
7. /처지,생각,뜻, 견해;
8. /즐겁게 감상하면서;
9. /-에서/-의/-에서부터;
10. /-으로,-의;

이오덕 가르침 9

잘못된 표현

1. 의외/
2. 의의, 의미/
3. 의하다/
4. 의하다(소문에)/

바로잡은 표현

1. /뜻밖;
2. /뜻;
3. /(-에 의해) 때문에;
4. /-에는(소문에는),
을 따르면, -으로는

1. 피동,사동의 남용

- 이수열

- 우리말을 어지럽히는 최고 원흉은 피동, 사동형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 보통 '-되다', '-시키다', '-지다' 따위의 접미사를 이용하는데, 이를 너무 많이 쓰면 문장의 뜻이 흐리멍덩해진다.
- 특히 피동남용의 경우 영어번역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탓으로 보인다.
- 영어문장에선 주어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피동이 주어를 다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우리말은 주어를 흔히 생략하기 때문에 피동형을 굳이 자주 쓸 필요가 없다.

ㄱ) ‘...되다’

- 이수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보통 한자어)뒤에 붙여 자동사로 만드는 접미사다. 글쓴이는 이 접미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사용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신 평소에 쓰던 것중 열의 아홉은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대부분 '-되다'를 붙여 만든 자동사는 '-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뜻도 더 명확해진다.

1)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습니다.

2) 난상 토론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다'를 쓰면 문장 성분이 뚜렷해진다. 피동의 뜻이 있는 '-되다'와 달리 '-하다'형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3) 극우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진보적 운동은 그 전도가 매우 험난하다.

4) 전국 농민단체협의회가 지난 1일에 연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치를 보면, '지난 1일에 연 토론회에서'를 떼고 읽으면 틀린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되다'를 즐겨쓰면 이런 실수가 잦다.

1) 돈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2) 결정해야 한다고

3) 극우를 극복하지 못하면

4) 제시한

ㄴ) '...되어진다' '...어(아)진다'

- '-되다', '-어(아)진다' 둘다 피동의 뜻으로 만드는 접미사다. 이를 겹쳐 쓰는 것은 웃긴 일이다. '-화(化)' 또한 이미 '~이 되다'라는 뜻을 포함한다. '피피동'이라도 되는가? 이렇게 쓰면 말 길이만 늘어나고 뜻만 모호해진다.

5)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질 길이 있겠죠.

6) 어깨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7) 하지만 우리말에는 저런 접미사 없이도 이미 피동의 뜻을 가지는 동사들이 대부분 따로 있다. 예를 들어 '누른다', '가둔다'라는 동사는 각각 '눌린다', '갈힌다'라는 피동형이 있다. 하지만 이를 '눌러진다', '가두어진다'로 쓴다면 잘못이다.

8) ~ 온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6) 어깨를 다쳤나 봅니다. / 어깨를 다친 것 같습니다.

7) 산업화하고 도시가 됨에 따라

8) 모이고 있습니다. / 쏠리고 있습니다.

ㄴ) '...화(化)된다'

- '~화(化)'라는 말은 괜히 낱말들을 개념화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를 즐겨쓰면 어디서 주워들은 낱말들만 주섬주섬 모아 쓴 느낌을 준다. 그래도 굳이 쓴다면 '-화하다'라고 바꿔 쓰는 것이 더 좋다.

사회가 산업화되어지고, 도시화되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기회가 많아진다. '-진다'라는 말 역시 피동의 뜻인데 이걸 주로 순우리말 동사에 붙여 쓰는 듯하다.

ㄱ) 산업화하고 도시가 됨에 따라

ㄷ) '-시키다'

사동형은 제 삼자에게 시켜서 하는 경우에 써야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괜히 말 늘일 필요 없다.

9)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킨다.

10) 입학원서를 접수시켜야
돼.

9) 하수인을 부려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전가한다' 라고 쓰면 된다.

10) 학생이 가만히 앉아 학부모 시켜 원서 내는 거라면 이렇게 써도 된다.
직접 원서 내는 거라면 '제출해야' 라고 쓰면 된다.

용어에 대한 cblim 생각

- 용어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것 보다는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정해야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된다.
 - OO기술이 아직도 생활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다른 분야에서 잘 쓰고 있는 용어를 차용해야 한다.
 - 사람은 유추analogy 해서 사물을 이해하므로...
 - 객체라는 말을 어느 분야에서 쓰고 있는가? 다른 분야에서도 쓰지 않는 전혀 생똥 맞은 용어를 쓰면 유추가 되지 않으므로 알기 어렵다.
 - 개체라는 말은 개인과 같은 개념으로 동물과 사물에까지 확장 적용된다.
 - 생물학에서 '개체 변이' 용어를 자주 쓴다. 그리고 그 말은 컴퓨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object 기술과 개념이 일맥 상통한다.
- 원저자가 단언한 것은 번역에서도 단언으로 나타내야 한다.
 - 단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설명형으로 늘리지 않는다
 - 단언은 개념을 머리 속에 남길 수 있는 수단이다
 - 설명은 이해를 돕는 용도이고, 머리에 각인하거나 전달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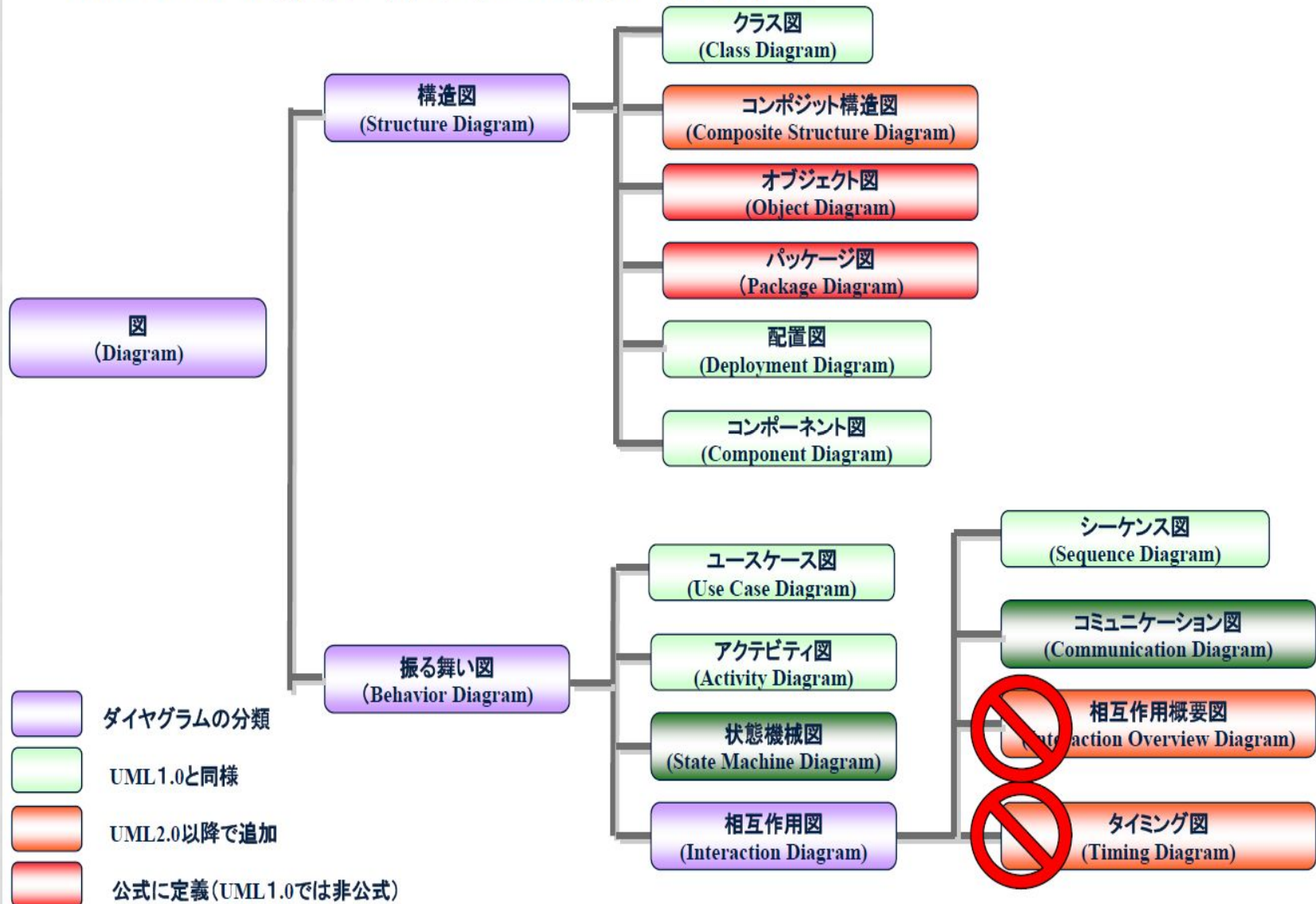
임춘봉

cbnlim@gmail.com

And Continued to Next Pages...

참고: 일본어

- UML 2.1의 13개 다이어그램 중 11개를 지원



참고: 중국어

UML的組成要素

事物Things

關係Relationships

圖形Diagrams

UML的事物

結構事物Structural Things

行為事物Behavioral Things

分組事物Grouping Things

附註事物Annotational Things

基本結構事物

類別Class

介面Interface

合作Collaboration

使用案例User Case)

主動類別Active Classes

元件Components

節點Nodes

참고: 중국어

行為事物

互動Interaction

狀態機State Machine

UML中的關係

相依關係Dependency

結合關係Association

一般化關係Generalization

實現化關係Realization

UML的圖形

類別圖Class Diagram

物件圖Object Diagram

使用案例圖Use case Diagram

順序圖Sequence Diagram

合作圖Collaboration Diagram

狀態圖Statechart Diagram

活動圖Activity Diagram

元件圖Component Diagram

部署圖Deployment Diagram

번역공부를 함께 하는 곳

- 번역가들의 즐거운 놀이터

<http://cafe.naver.com/transweekly.cafe>

참고

- 이오덕, “우리 말 바로 쓰기” 전 3권
- ----, “우리 문장 쓰기”
- 임춘봉, 전형철 역, UML 사용자 가이드 (2판), 2009.1 (출판 예정),
- 원저: Grady Booch, UML user's Guide, 2nd ed., 2007